

코로나에 울고 웃은 광주 대형소매점 매출

호남통계청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동향...3월 감소율 19.5% 최다 감소 확진자 100명 넘은 7월 12.9%↓...3차 확산 11~12월 연말 특수 실종 긴급생계비 지원 4~6월 매출 증가...대형마트 매출 광역시 유일 감소

지난해 광주에서는 코로나19 1차 확산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3월 소비 부진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보다는 백화점 매출 낙폭이 더 심했다.

2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6054억원으로, 전년 1조6634억원보다 3.5%(-58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2.6%)보다 0.9%포인트 감소

폭이 더 큰 수치다. 전국 판매액은 62조8111억원에서 61조1573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7대 특·광역시 감소율을 비교하면 신천지 교회발 확산세가 거셌던 대구(-6.0%)가 가장 심했다. 이어 대전(-5.1%), 울산(-4.4%), 서울(-4.2%), 광주(-3.5%), 부산(-1.9%), 인천(-1.1%) 순이었다.

호남통계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월별 판매액 증감을 비교해보니 코로나19 확산 시점에 비해 매출이 크게 줄어든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1월만 해도 대형소매점 매출은 1414억원

■ 광주 대형소매점 매출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1414	1251	1441	1230	1407	1288	1269	1354	1552	1399	1509	1520
2020	1529	1051	1160	1279	1474	1330	1105	1311	1504	1471	1441	1398
증감률	8.2	-16.0	-19.5	4.0	4.8	3.3	-12.9	-3.2	-3.1	5.1	-4.5	-8.0
코로나 확진자	-	9	15	6	2	24	148	174	117	19	204	380

에서 1529억원으로 8.2%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 확진자가 나온 2월에는 16.0%나 줄어든 1051억원에 그쳤다. 본격적인 확산세가 시작한 3월에는 매출이 무려 19.5% 감소했다.

이후 4월(4.0%)과 5월(4.8%), 6월(3.3%) 등 3개월에 걸쳐 대형소매점 매출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교회를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시작한 7월에는 매출이 12.9% 감소한 1105억원에 불과했다. 이달에는 광주 확진자가 148명 발생하며 첫 100명대 확진

을 기록했다.

8월(-3.2%)과 9월(-3.1%)에도 매출 하락세는 지속됐으며, 추석 명절이 막 지난 10월에는 매출이 5.1% 증가했다.

3차 확산세가 시작한 11월(-4.5%)과 12월(-8.0%)에도 매출이 또 다시 줄어들며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

호남통계청 측은 "지난해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시점에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 긴급생계비 지원 시기가 4월부터 6월까지와 추석 명절에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형소매점 가운데 백화점은 대형마트보다 매출 부진이 더 심했다.

지난해 광주 백화점 3곳 매출은 8392억원으로, 전년 8834억원보다 5.0%(443억원) 감소했다. 광주 대형마트 매출 감소율은 1.8%였다. 단 지난 2019년 말 이마트 상무점이 폐점하면서 광주 대형마트 매출은 6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매출이 감소했다.

한편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 구성비는 백화점이 52.3%, 대형마트는 나머지 47.7%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백화점 평균 구성비(44.8%)보다 7.5%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공예 작가 3인 작품 '마이마스터즈' 서 만나요

광주신세계 팝업스토어 운영

(주)광주신세계는 이달 말까지 작가 3인의 수공예 작품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본관 3층에서 운영되는 '마이마스터즈' 매장에서는 김영희(원석 디자인)·박승자(광목 자수)·한두리(보석)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영희 작가는 시와 동화에서 영감을 얻어 보석 제품을 만든다. 박승자 작가는 광목(베)에 자수를 놓는 '휴데코' 제품을 내놓는다. 한두리 작가는 천연석과 은으로 보석 제품을 꾸민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 3층에 마련된 '마이마스터즈' 수공예 제품 임시 매장. <광주신세계 제공>

급등하던 채소값 '두 자릿수' 하락 안정세 찾아

상추 22.2%↓·애호박 20%↓

명절이 지나면서 채소값이 안정을 찾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2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판매된 주요 농산물 가격을 조사한 '열마요 2104호'를 24일 발행했다.

이날 상추와 오이, 호박, 풋고추 등 주요 채소 가격은 2주 전보다 '두 자릿수' 하락했다.

상추 100g 가격은 700원으로, 2주 전보다 200원(-22.2%) 내렸다.

취정오이 10개는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16.7% 하락했다. 애호박 1개 가격도 500원(-20.0%) 내린 2000원에 거래됐고, 풋고추(100g)

는 21.4%(-300원) 내린 1100원에 팔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를 겪고 있는 달걀 값은 2주 전보다 또 올랐다. 특란 30개 가격은 2주 전보다 0.4% 오른 7160원으로, 1년 전(4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79.0% 급등했다.

aT 관계자는 "다음 달 개학을 맞아 급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배추, 무 등은 오름세가 예상된다"며 "오이와 호박 등 과채류를 비롯한 기타 채소류는 기온상승에 따른 생육양호로 산지 출하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림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유통정보 KAMIS 홈페이지(kam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9개 롯데마트 새벽 수확한 딸기 당일 판매

광주·전남 9개 롯데마트가 25일부터 당일 새벽에 수확한 딸기를 판매한다.

롯데쇼핑은 이날부터 전국 100여 개 롯데마트 점포에서 당일 새벽에 수확한 딸기를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벽 딸기는 오전 3시부터 수확하며 선별 과정과 블류센터 입고를 거쳐 오후 3시 이후 각 점포에 들인다. 광주·전남 점포에서 팔리는 딸기는 직접 지역 농가와 연계해 공급한다.

지난해는 수도권 70여개 점포에서만 새벽 딸기를 판매했으나 올해는 딸기 농가와 연계해 공급권을 확대한 것이다.

/백희준 기자 bhj@



지난해 목은 때 싹~ 벗겨볼까 광주지역 4개 롯데마트는 다음 달 3일까지 '봄맞이 청소용품 할인전'을 진행한다. '3M'에서 출시되는 청소·욕실·주방용품 전 품목과 '볼스원' 크리스탈 세차용품(7종) 등을 할인 판매하며, 3M 청소용품을 2만5000원 이상 사면 롯데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한다.

<롯데쇼핑 제공>



광주문화신탁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